

Daily Auto Check

2020. 10.13(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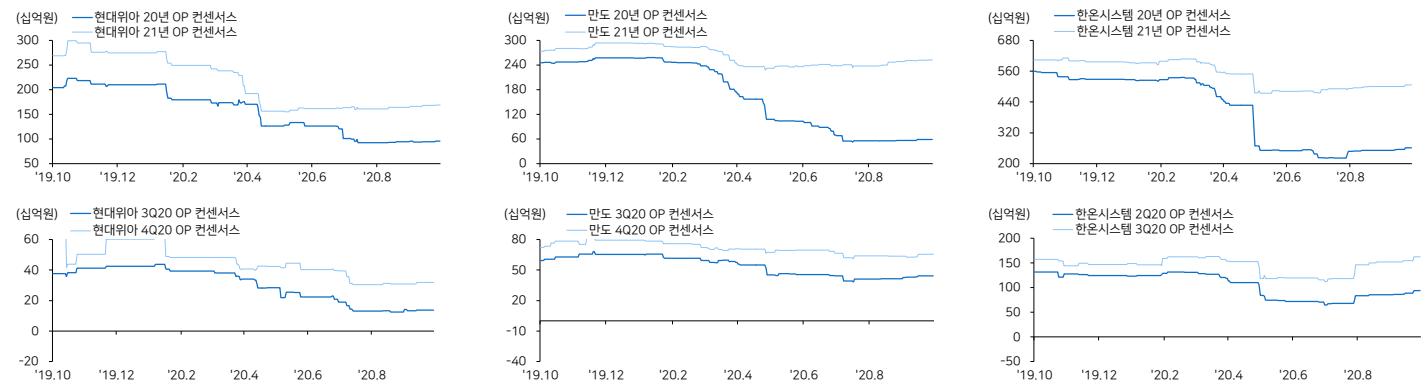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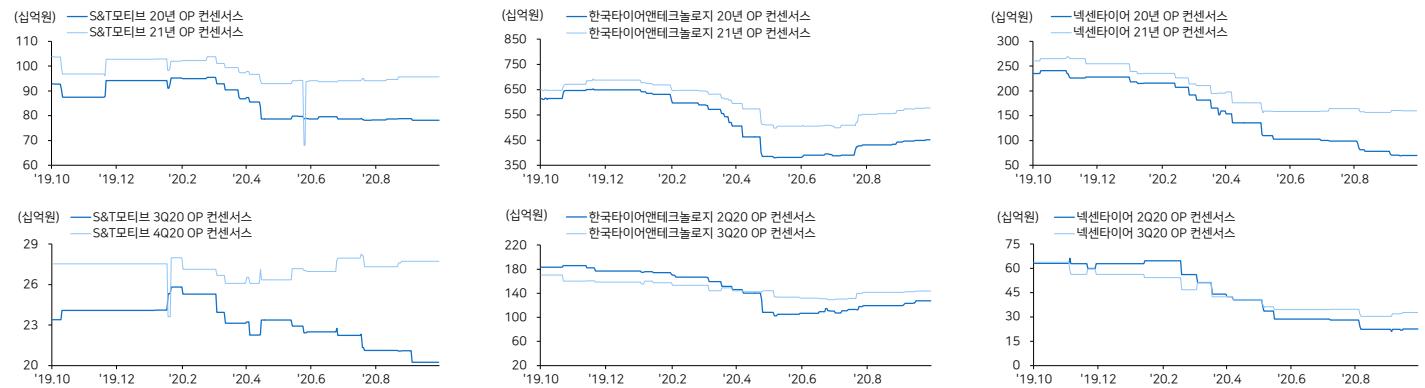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코로나 탈출기 현대차, 3분기 영업익 1兆 기대 (아시아경제)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1조원대를 회복할 전망. 견조한 내수시장은 물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모든 글로벌 공장 가동이 정상화된 덕분.

<https://bit.ly/3iWBWdQ>

현대차 제네시스 구독서비스 확대, 고객 혜택 강화하고 지역 넓혀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차량 구독서비스를 확대. 현대차는 고객 혜택을 강화한 차량 구독서비스 '제네시스 스페셜 퍼'를 운영. 제네시스 스페셜 퍼는 월정액을 내면 제네시스 차종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구독서비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9469

현대차 그룹, 엇갈린 노사동정...현대차·모비스 '동결' 기아차 "원칙대로 총력투쟁" (아주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1년 만에 임금동결에 합의했지만, 협정회사인 기아자동차는 여전히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기아차는 현대차 결과와는 상관없이 원칙대로 임단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https://bit.ly/3iIMW0n>

코로나의 역설...활활 불타는 중고차 경매장 (조선비즈)

코로나19로 전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중고차시장은 초반 잠시 주춤하더니 금세 부진을 회복하고 호황을 맞이함. 올해 예상 거래 대수는 264만대로 지난해 전체 중고차 판매대수인 254만대로 임단협을 훌쩍 뛰어넘었음.

<https://bit.ly/3iQxRig>

현대차,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 위해 '소형 CUV 침투' (글로벌이코노미)

현대자동차가 소형 전기차(EV) 크로스오버유리티카(CUV)으로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B세그먼트 SUV와 세그먼트 CUV에 속하는 전기차 출시를 통해 소형 전기차 SUV 시장을 공략.

<https://bit.ly/3iTrzHy>

엘리엇 글복시킨 현대차... 그 뒤엔 정의선 'PT' 있었다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현대차그룹 경영권을 위협한 엘리엇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해외 금융 큰손들을 직접 만나 떨친 '프리젠테이션' 스크린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짐.

<https://bit.ly/2SNvNWH>

중국, 신에너지차 계획 구체화... "2025년까지 판매차 25% 친환경차로" (아주경제)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일 신에너지차 보급 목표와 전략 계획 등을 담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 (2021 ~ 2035년)'을 통과시킴. 이는 관련 정책의 초안이 공개된 지 약 10개월 만.

<https://bit.ly/3iHxDVm>

중국서 개발박... 뷔익 잘 팔려...GM, 2년만에 첫 매출성장 (뉴스핌)

GM이 지난 3분기 중국 시장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증대를 기록. GM은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지속적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3분기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77만1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

<https://bit.ly/34UAAA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